화살

1960년 8월 상반호 (131)

3 - APR 11 1961
COPY

안 창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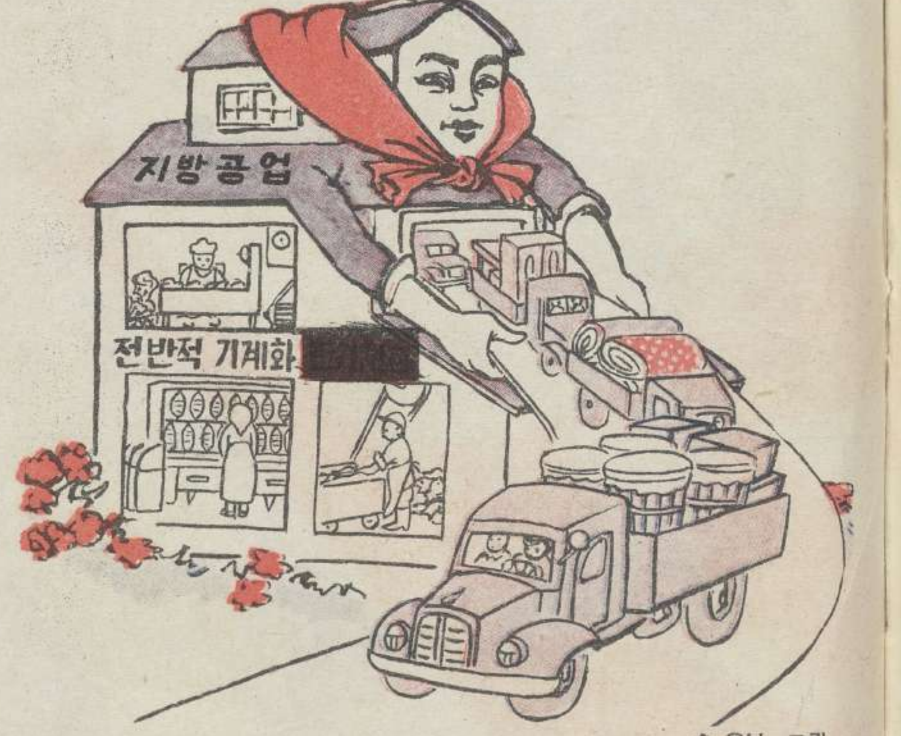
새로운 비약에로!

홍 종호 그림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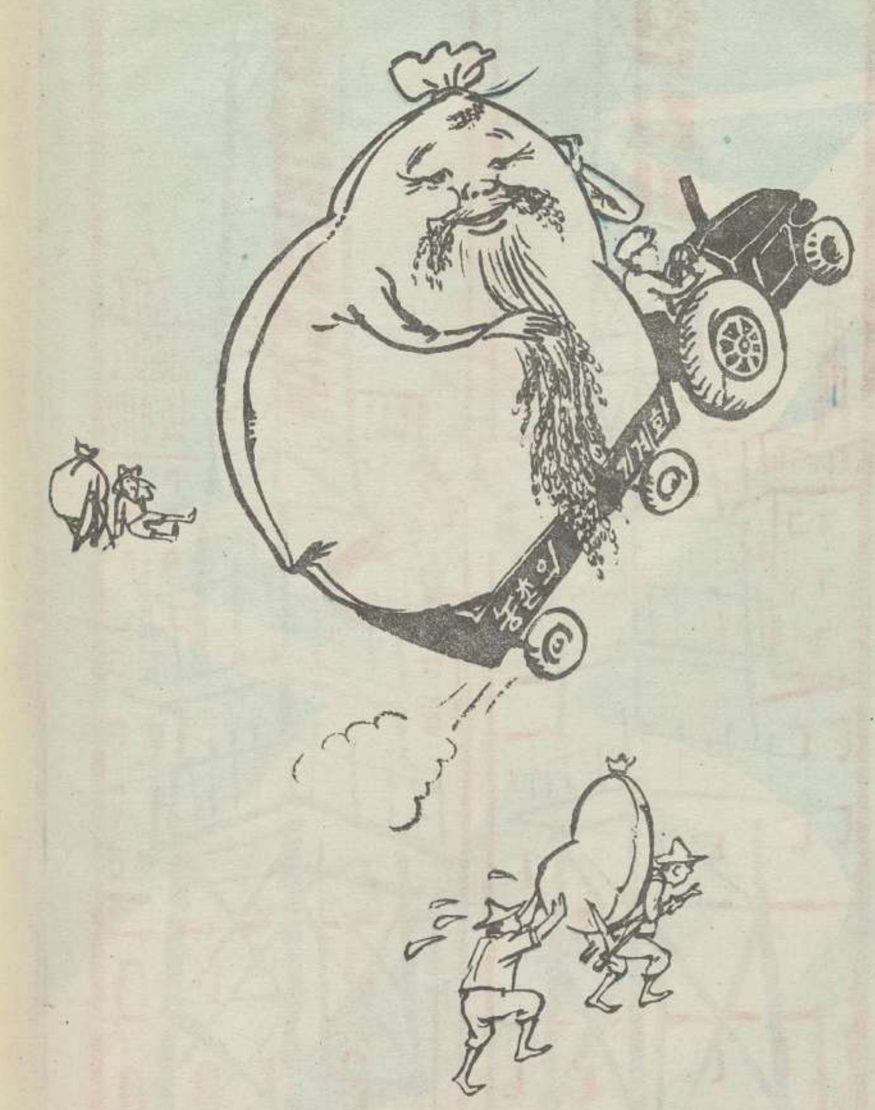
—얘야! 이 큰 기계를 움직이는 로동자들은 어데 있느냐?
—할아버지 제가 움직여요

솜씨가 늘어 간다



송 용남 그림

이 힘을 당해 낼 수야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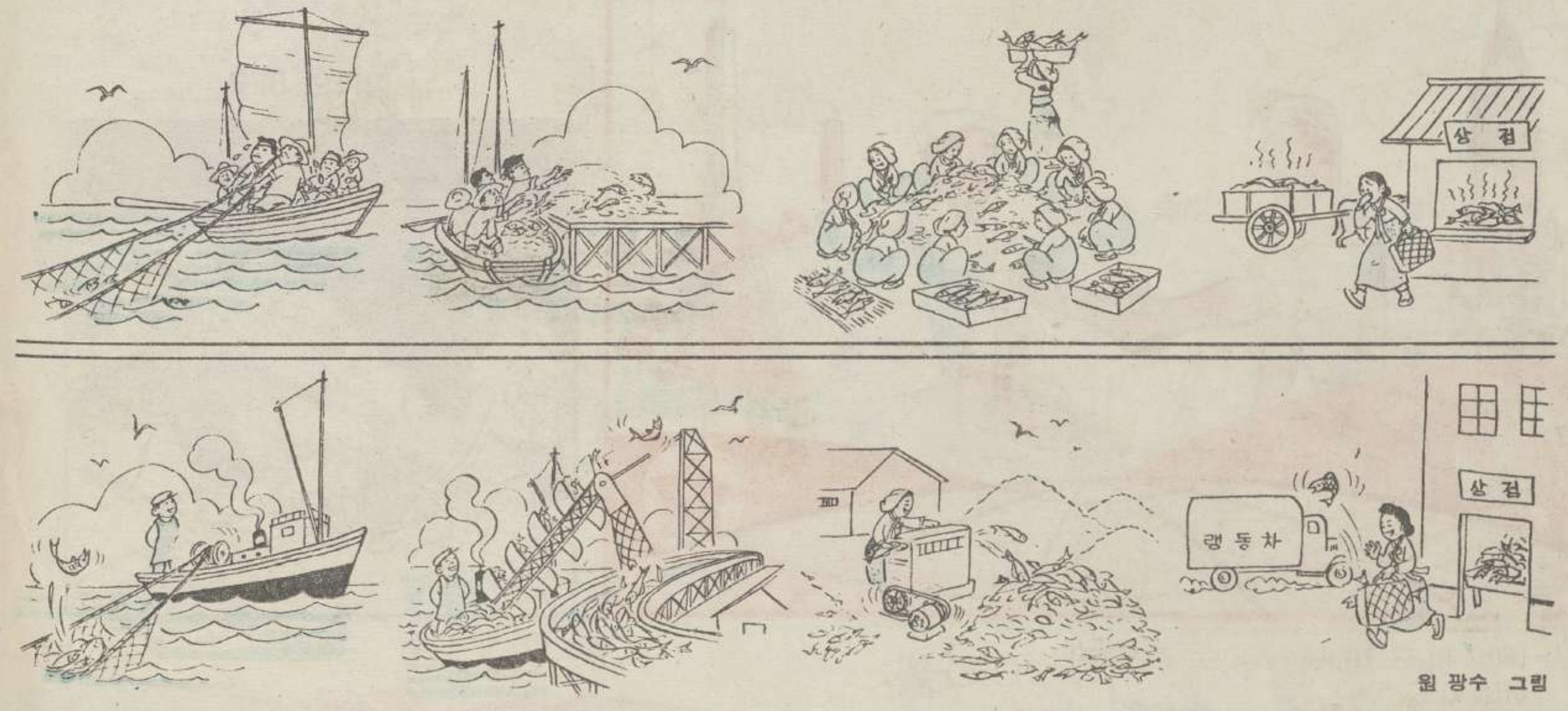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적고도 큰 힘

백 인균 그림

어느 편이 더 좋은가?



원 광수 그림

조쏘 친선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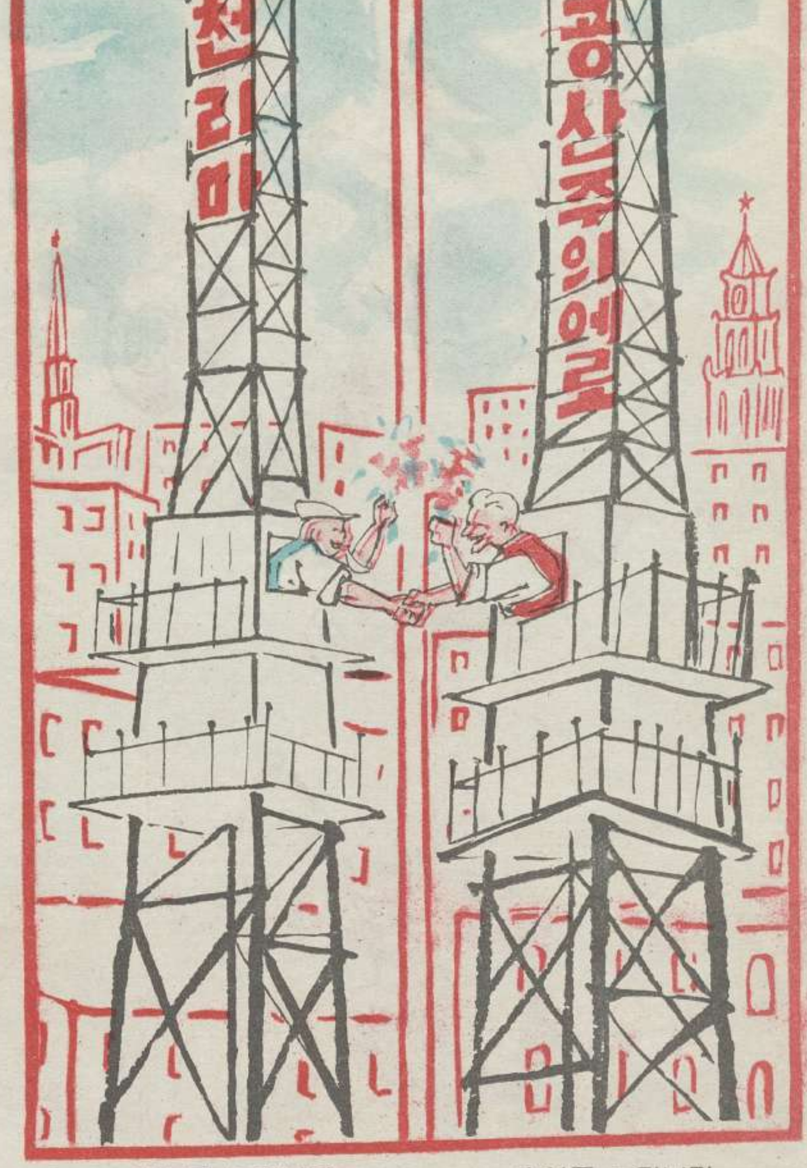
그가 원한 대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로력의 열매입니다

송 용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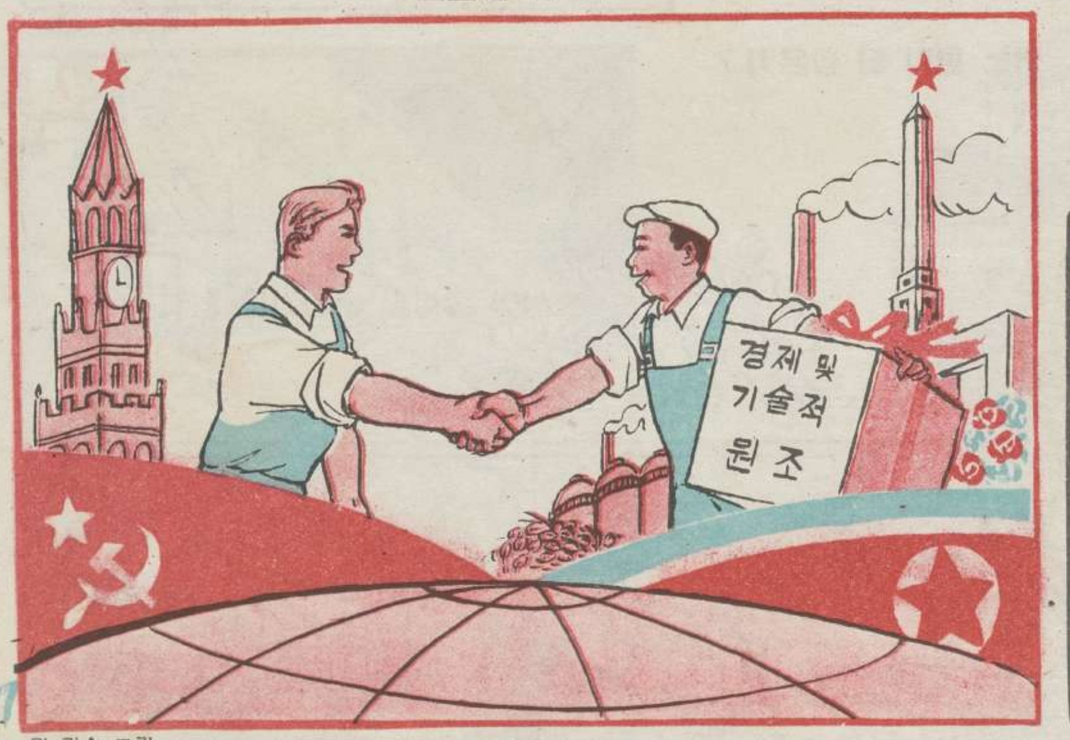
친선의 악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허 능택 그림

의로운 손'길



원 광수 그림

북조선

침략의 마수

남조선

천리마 시대의 체육 대회

하늘에도 땅에도 꽃이 피였다.

조 명식 그림

편지 전달 계주 도상에서

—아저씨 우리들의 편지도
원수님께 전해 주세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신 금단 선수

증산의 솜씨로 우승기도 쟁취

훌륭한《유모》

허 능택 그림

일부 축산 일'군들은 정초를 거칠게 절단하여 가축들에게 먹이고 있다.

아무리 돼지라해도 그대로야 어찌 먹겠소.

황북 황철 농목장 리 창근 그림

늦잠 끝에 대소동

구성 광산 기계 공장 최 섭하 그림

이런 현상은 없는가?

남포 제련소 오 영록 그림

왜 그럴까?

원 광수 그림

소화 불량

유 진용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르며 소스라쳐 깨여난 허 정은 얼결에 모가지부터 만져 보았다.

《흐, 별놈의 꿈두 다 보겠군…》하고 그는 눈을 꾹 감고 이불을 뒤집어 썼으나 정신은 점점 말똥해졌다.

더구나 달아난 리 승만의 모가지가 이불속으로 기여 들어 오고 있지 않는가.

온 몸에 소름이 사르르 돋았다.

…지난 밤 꿈에 어찌나 혼'살이 났던지 허 정은 한낮이 되도록 《정사》도 치루지 못하고 그냥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런 때에는 의사도 소용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비서는 다른 묘책을 생각해 냈다. 그 묘책이란 꿈은 어쨌든 간에 해몽이 제일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꼽힌다는 점쟁이들을 불러 들였다. 어중이떠중이 점쟁이들이 몰려 왔다.

선참으로 나타난 관상쟁이가 허 정에게 하는 말이다.

《각하의 상을 유심히 보니 소인의 마음이 여간 아니외다》

《뭐가 여간 아니야?》

《저… 리 승만과 비교해 볼 때 말입니다》

《그래 내 관상이 좋단 말이지》

《글쎄요… 좌우간 리 승만이야 관상으루 봐두 패가 없구 우둔하구 왁살스러웠으니까요. 허지만 각하는 우선 혈색이 괜찮구요…》

《그래!》 허 정은 금시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그리구 또》

《그 혈색으루 보아 야구를 잘 하시겠구요…》

《야구?… 하기야 한때 코취 노릇을 좀 해봤지》

《바루 제가 말씀 올리자는 게 그게 올시다》하고 관상쟁이는 신이 나서 계속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간에서는 깡패놈이 들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까부시는 몽둥이를 허 정식 몽둥이라구들 하거든요》

《뭐라구?!》 허 정은 벌컥 일어나려다가 무슨 생각인지 도로 누웠다. 《하기야 그게 바루 내 정치의 도구요, 신조지》

《그러기 겉보람이 속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구 각하의 코'수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코'수염?》

《그럼은요. 그 새'노란 코'수염이야 말로 미국 사람들의 총애를 받구두 남음이 있지요》

관상쟁이의 뒤를 이어 장님이 들어 왔다.

장님의 첫 마디가 또한 들어 볼만하다.

《아니 이거… 내가 잘못 찾아 왔나》

《잘못은 뭐가 잘못이야?》

《신통히두 모두 같으니 말이외다》

《같긴 뭐가 또 같아?》 허 정은 다시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아 글쎄 그 옛날 그놈의 불길한 리 승만의 운명을 점쳐 봤을 때나 엇그제 장 면의 속을 훑어 봤을 때나 신통히두 하나 같단 말입니다. 그래 혹시 이번에는 좀 다를가 해서 예까지 허정허정 걸어 왔더니…》

《그런 쓸 데 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내 꿈이나 해명해!》

《글쎄 잠간 계십시오. 우선 그 이름부터가 모두 불길하다니까요. 승만으루 말하면 벌써 저승에 가야 할 팔잔데 늦도록 안 가구 있다가 종래 모가지가 달아났지요. 그리구 장 면이란 글'자는 길이길이 잠든다는 건데 아직 그러구 있으니 조만간…》

《글쎄 그런 소린 듣기 싫대두!》

허 정은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질렀다.

《허지만 각하의 신조를 보면…》

《그래 어서 그걸 말하란 말이야》

《굵게 짧게 살자는 신조가 아주 강하외다》

《아니, 굵게 짧게 살다니?》

《글쎄 뭐라구 말씀 올려얄지… 이를테면 망하는 건 뻔하니 어서 붙어 있는 동안 듬직히 긁어 들이자는 거지요》

《닥쳐! 아이구, 하나님 맙시사!》

허 정은 막 악발을 하며 신음 소리를 내는데 장님은 그대로 자기 주장을 계속했다. 《그러나 할 수 없지요, 점풀이가 그렇게 나오는 걸요. 그리구 못된 병의 속진찰만은 제가 의사보다 낫쉐다. 병명을 붙인다면 일명 선거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은 소화불량이지요》

《무슨 놈의 그런 소화 불량이 있어, 각하께서는 조반두 안 잡수셨는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던 비서가 이렇게 호통을 뽑았다.

《그야 뻔합지요. 지난 3개월 동안에 부정축재한 것만 해두 색이지 못해서 그냥 걸려 있구 또 인민들의 원한이 고일대로 고여 굳어졌으니 무슨 재간에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썩 물러 가!》 외마디 소리를 지른 허 정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치뜬채 두 팔을 허우적 거렸다.

장님은 슬슬 피해 문 밖으로 나가며 이렇게 덧붙여 웨쳤다.

《그 소화 불량은 하나님도 점쟁이도 의사도 고치지 못해. 오직 인민들만이 그놈의 배'속을 말끔히 수술하고 해부해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라!》

남조선에서 진행된 7월 29일 <민의원><참의원> <선거>는 <민주당> 상층부와 그와 결탁한 허정 일당이 조성한 삼엄한 폭압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관권과 협잡으로서 날조되였다.

괴뢰들과 그 지지자들

송 용남 그림

남조선 괴뢰 집단은 미제의 종 노릇을 하면서 미제와 함께 남조선 인민들을 예속과 빈궁속에 몰아 넣고 있다.

기능은 수행된다

 안 창수 그림

《민주당》은 도깨비들의 《칼춤》

갑•(신문을 보면 갑이 별안간 토하는 형용을 하면서) 에익, 에익.

을•이 사람 왜 이러나, 응?

갑•이것 좀 보게, (신문을 내 밀며) 《민주당》인지 《먼지당》인지 그의 큰 도깨비들이 떠벌리는 《선거 공약》을,…3년 전에 먹은 송편이 다 올라 올려구 해.

을•《선거 공약》이 어떻게 됐단 말인가?

갑•《정치적 자유》니 《실업자 구제》니 《절량 농가 근절》이니 도깨비 잡고대하는 소리가 하도 가소로워서…

을•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격으로 놈들의 배'속을 채우기 위해 들고 나오는 기만에 가득 찬 빈소리야 말로…

…아하하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네.

갑•콩밭에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구 친일, 친미, 민족 반역자들이 모인 어중이떠중이 소굴에서 신통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잖나!

을•아무렴, 그렇구 말구!

갑•개 승만이와 맞장구를 치던 이 각서리패들이 이제는 허 정 일당들과 손을 맞잡고 냅다 몰고 있으니…

을•몰다니?

갑•살인, 테로, 폭압 등으로 인민 탄압에 깡패들과 경찰들을 몰고 있단 말일세.

을•아—, 그러니까 지금 남조선에선 3.15 류혈 《선거》 때의 사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군.

갑•그 뿐인가? 허 정 일당의 밑구멍을 쑤셔서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밀린 로임을 요구한다구 해서 《불순 분자》로 도장을 찍는가 하면, 학생들이 악질 교수들을 반대하여 동맹 휴학을 한다고 잡아 가두는 등 얼씬하면 《공산 5렬》이란 딱지를 붙여서 탄압하면서두 《자유》를 떠벌리니 이게 무슨 《자윤》가?

을•히틀러와 도죠보다 더한 놈들일세.

갑•더하구 말구, 이번 《선거》에서도 《립후보 등록》으로부터 《선거 운동》에 이르기까지 승만이가 쓰던 곰팡이 핀 《선거법》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서도 《정치적 자유》를 지껄이니… 낯가죽이 두꺼워도 유만 부득이거든

을•옳아, 놈들의 《정치적 자유》란 억압과 착취, 무권리와 빈궁을 강요하는 《자유》일세!

갑•특히 이 자들이 격에 맞지 않는 것은 《실업 구제》요, 《절량 농가 근절》이요. 《중소 기업 육성》이요 하구 인민들을 얼리는 수작이야 말로 미친 개소리란 말이야.

을•아하하하, 어쩌면 신통히도 《자유당》 허재비들이 《선거》 때에 불던 나발 소리와 똑 같은가 말야!

갑•하하, 그럴 수 밖에, 《자유당》이나 《민주당》은 상전 아메리카가 만든 배 다른 졸개들이니까.

을•그렇지 (무릎을 치면서) 같은 씨가 만든 배 다른 졸개! 과연 자네 관찰력이 예민하네.

갑•사실이 증명하잖는가?

을•하하하, 그렇지!

갑•자—, 보게 《실업자 구제》니 《절량 농가 근절》은 새로운 소리가 아니지만 실업자와 절량 농가가 날로 붓고 있는 것을 뻔히 보구 속수 무책이면서도 떠벌리니 개가 달 보구 짖는 소리가 아닌가!

을•그야말로 도깨비의 잡고대네구려… 근데 이 보게, 지난 6월 20일에 아이크가 남조선에 기여들지 않았는가?

갑•참 그때 《민주당》 괴수 장 면이란 놈이 아이크의 소매를 붙잡고 죽는 소리로

—각하! 살려 주세요. 상전님들에게도 리윤이 남고, 우리들도 한몫 먹는 《원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하고 애걸복걸했다네.

을•아하하하… 주막 강아지보담 더 간사한 놈이로군!

갑•그 따위 수작을 하고도 《국민 경제》를 운운하니

을•그러니까 놈들의 지꺼리는 소리엔 삼척동자도 곧이 들지 않는단 말야!

갑•오늘 서울시에서만도 시민의 40%가 집 없이 반공호에서 지내고 있으나 이 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든…

을•그러니 이 사람아 《민주당》의 지배층은 거꾸러진 승만의 수법을 이어 받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일세! 원쑤!

갑•이놈들이 개 승만의 수법대로 계속 《칼춤》을 추다간 4월에 피흘린 젊은 사자들은 그의 피값을 받아 내고 말걸세!

을•그렇지 그래! 이 시각에도 남조선 각지에선 이 도깨비들의 《칼춤》을 꺾기 위하여 줄기차게 싸우고 있으니까!

피 호주

《당선》됐다

박 승히 그림

—나를 지지해 준 사람에게 모든 힘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물려 받았다

백 인규 그림

—헤헤헤 미안하지만 좀 빌립시다

남조선 《민주당》 지배층은 리 승만의 수법 그대로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박탈하며 정치적 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부산, 대전, 남원, 밀양등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는 미제와 <민주당> 상층부가 날조한 협잡 선거를 반대하여 격분에 찬 시위와 <선거장> 습격등의 강력한 투쟁이 벌어 졌다.

불이 붙었다

백 인규 그림

도적쥐가 쌀독을 지킨다

송 용남 그림

미제는 남조선 괴뢰 재정 예산의 실제적 주인이다. 최근에는 《한미 예산 공동 심의안》까지 조작하여 예산의 구체적 편성 과정에서부터 간섭하여 예산 편성의 방향과 규모, 세출입 구성, 지출 내역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괴뢰 국회놈들에게 명령 지시하고 있다.

어제도 있은 일

남조선에서 미군 야수들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 가는바 7월 1일에는 부산 거리에서 미친 듯이 달리던 미군차가 뻐스를 들이 받아 11명의 조선인 승객에게 빈사의 중상을 입혔다.

백 인균 그림

—이놈아 뭣하는거야 자동차 하나 단속 못하고!
—넷… 죄송합니다!

미국제 거름들

조 병조

월가의 사환'군들인 미국 대사 맥코노이와 《주한 미국 경제 협조처장》 모이어 등이 괴뢰 파도 정부 총리 허 정과 그의 《장관》 나브래기들을 데리고 이른바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벌려 놓았다.

모이어란 작자가 목청을 돋구어 가지고 《한미 예산 공동 심의안》에 대한 목적과 실무적 대책에 대하여 떠벌이는데 도무지 리해할 수 없는 애매한 말로써 늘어 붙이고 있다.

《… 말하자면 그것은 한국 정부의 〈번영〉을 위한 것이며 이를테면 주한 미국 경제 협조처는 예산 요구서 사본과 기타 자료를 제공 받을 뿐이며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한미간의 예산 편성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괴뢰들은 알만하다고 그의 말에 감탄하면서 련신 고개를 끄덕거린다.

《… 그리하여 한국 정부의 예산과 환화 사용 계획은 한미간에 공동 심의하여 결정짓자는 것입네다… 허 선생! 알만합네까?》

《네! 글쎄올시다 알듯도 합네다만요…》

《허 선생!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미국은 한국 정부의 국가 예산을 우리 주한 미국 경제 협조처에서 책입지고 편성해 드리겠다는 말입네다…》

모이어의 애매하고 모호한 설명에 맥코노이 자신도 듣기에 거북했는지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 파도 정부는 대찬성입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경제가 미국의 원조 없이 하루도 지탱해 낼 수가 없는 터인데 미국에서 도와 주겠다는 일에 마다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좋습네다! 허 선생! 그런데 이것은 결코 대한 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닙네다. 어디까지나 우리 미국과 대한 민국과 서로 손을 맞잡고 잘 협조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리해해야 합네다…》

《옳습네다!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곧 이 문제를 알리도록 하옵죠…》

이리하여 이날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이 괴뢰 정부 예산을 완전히 틀어 쥐고 간섭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방향, 규모,세출입의 구성,지불 내역에 이르기까지 일체 명령 지시할 수 있게 되였다.

며칠이 지난 후 또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가 열리였다.

여기에서는 미제 강도들이 괴뢰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틀어 쥐는 것만도 부족하여 괴뢰 정부가 인민들로부터 긁어내는 세금까지 틀어 쥘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기 시작하였다.

《허 선생! 우리의 의견은 한국 정부가 현재 받아 들이는 외환세, 물품세, 관세 등을 우리의 대충 자금 (미국의 원조 물'자를 판매금으로서 미제가 이것으로 남조선 경제를 략탈하며 남조선을 군사 기지화하는데 쓰는 자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네다. 이것은 우리 미국이 한국을 번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대 없습네까?》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반대한다는 말입네까! 허 선생! 걱정할 것이 없습네다. 우리 미국 정부는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계속 증강할 것입니다》

《허 선생!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사 각하! 미국의 안에 동의합네다》

이리하여 미제 침략자들은 괴뢰들을 사촉하여 괴뢰 정부 예산의 《내국세》《외환세》 456억 환 《물품세》 370억 환 《관세》 412억 환 도합 1천 238억 환에 달하는 세금액까지 강탈하기로 되였다.

《선거》

전날에

김 동철 그림

불'길은 타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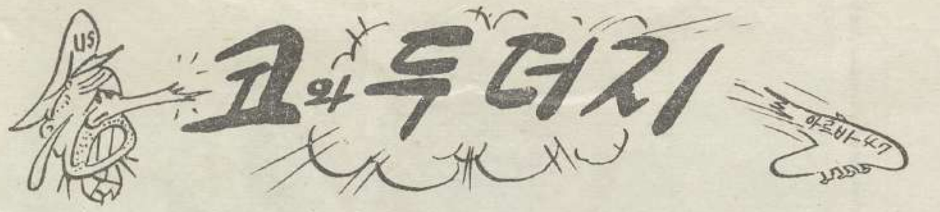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미국 독점 자본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우냐? 진땀이 나누나!
허 정— 날이 갈수록 뜨거워만 갑니다

더욱 빠져만 드러간다

백 인균 그림

미제는 남조선에 대량 살륙 무기를 비법적으로 끌어 들이고 그 발사 소동을 계속 거듭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도발 소동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구원할 수 없다.



코와 두더지

서 창훈

사람의 코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세 치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코의 길이가 5,000 킬로메터를 넘는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단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는 그런 굉장한 긴 코가 엄연히 있다!

그 코는 배우의 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크림이나 도랑이나 분을 바르지 않았었다. 그 코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가추고 있었다.

례컨대 지난 7월 1일 쏘련의 아르한겔스크 부근으로 들여 밀었던 《아르비—47》 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던 그 코는 두 문의 기관포, 포탄들, 특수 정찰용 촬영 기구 그리고 무선 전자 기구들로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이만하면 이 코가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성질을 띤 코가 아니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더우기 각종 군사적 정탐 기구를 실은 《유—2》 형이란 명칭이 붙어 있던 또 하나의 다른 코가 바로 2개월 전인 5월 1일에 쏘련의 중심부인 스웨르드롭쓰끄 근방까지 들여 밀었던 사실과 결부하여 볼 때 이 코가 극도로 호전적인 성질을 띤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 코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냄새를 맡는 것을 그의 기본 기능으로 삼고 있으며, 유기체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혀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2》 형, 《아르비—47》 형의 코들도 역시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니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코들은 바로 미국의 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이젠하워가 위원장으로 쳐박혀 있는 미국 《국가 안전 위원회》의 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알렌 덜레스가 국장으로 도사리고 있는 미국 정보국의 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이젠하워와 알렌 덜레스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 미 국방성의 《4,956 호실》과 미 전략 공군 사령부의 코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아주 괴이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5,000 내지 8,000 킬로메터 밖의 남의 나라의 령공에까지 자기의 코를 들여 미는 《솜씨》를 가진 이 두개의 《기관》— 즉 펜타곤의 《4,956 호실》과 미 전략 공군 사령부가 모두다 40 메터나 깊은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워싱톤 중심에, 다른 하나는 미국 중부의 오마하라는 도시 부근에….

40 메터나 땅 속 깊은 어두운 곳에서 군복을 입은 두더지들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누가 믿겠는가. 즉 《기상 관측》이니, 《자기 마당 연구》니 하는 과학 연구 사업을 무엇 때문에 땅 속에 파묻혀서 하여야 한단 말인가.

이미 폭로될대로 폭로된 바와 같이 이 두더지들과 그 피수들은 죽은 덜레스의 유언에 쓰인 《전쟁 접경 줄타기 전술》을 여기서 꾸미고 있으며 자기의 코들을 대양 건너 머나먼 쏘련 령공으로 들여 밀었었다.

그러나 백악관과 펜타곤의 두더지 무리들이여! 추악한 코를 함부로 내 휘두르지 말라. 그것을 아무데나 함부로 들여 밀지 말라.

너의 《유—2》 형 코가 로케트라는 쏘련 인민의 억센 주먹에 산산 쪼각으로 날아 났으며 《아르비—47》 형 코가 쏘련 령공으로 들여 밀자 추격기라는 쏘련 인민의 다른 주먹에 등뼈가 부러져 나간 것처럼 그 어떤 형의 코든지 들여 밀기만 한다면 뿌리채 뽑아져 없어지리라.

어찌 두더지 무리의 그 추악한 코 뿐이겠는가. 참을성이란 한도가 있다.

《유—3》 형이건, 《아르비—48》 형이건 그 어떤 형이건 만약 또다시 들여 미는 경우에는 오직 그 코'대 뿐만 아니라 그 코가 붙어 있는 더러운 몸뚱아리 자체가 재'가루로 변하고 말 것이다.

《코 막고 답답하다》는 속담처럼 오늘은 비록 숨이 가쁠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그 코를 들여 미는 그날에는 그 두더지 구멍이에 영영 파묻혀 숨조차 쉴 수 없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5월 1일과 7월 1일 쏘련 령공을 침범하였던 미제 날강도들이 즉시 격추된데서 명백히 표시된 바와 같이 쏘련은 침략자들을 그 어느 때라도 분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여기서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감히 계속 침략 행동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더욱 강력한 반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허 능택 그림

장사'군들의 속심

안 창수 그림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군비를 철폐하는 날엔 우리는 망하는 판이네!

미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은 군비 경쟁과 전쟁에서의 막대한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군비 철폐를 원치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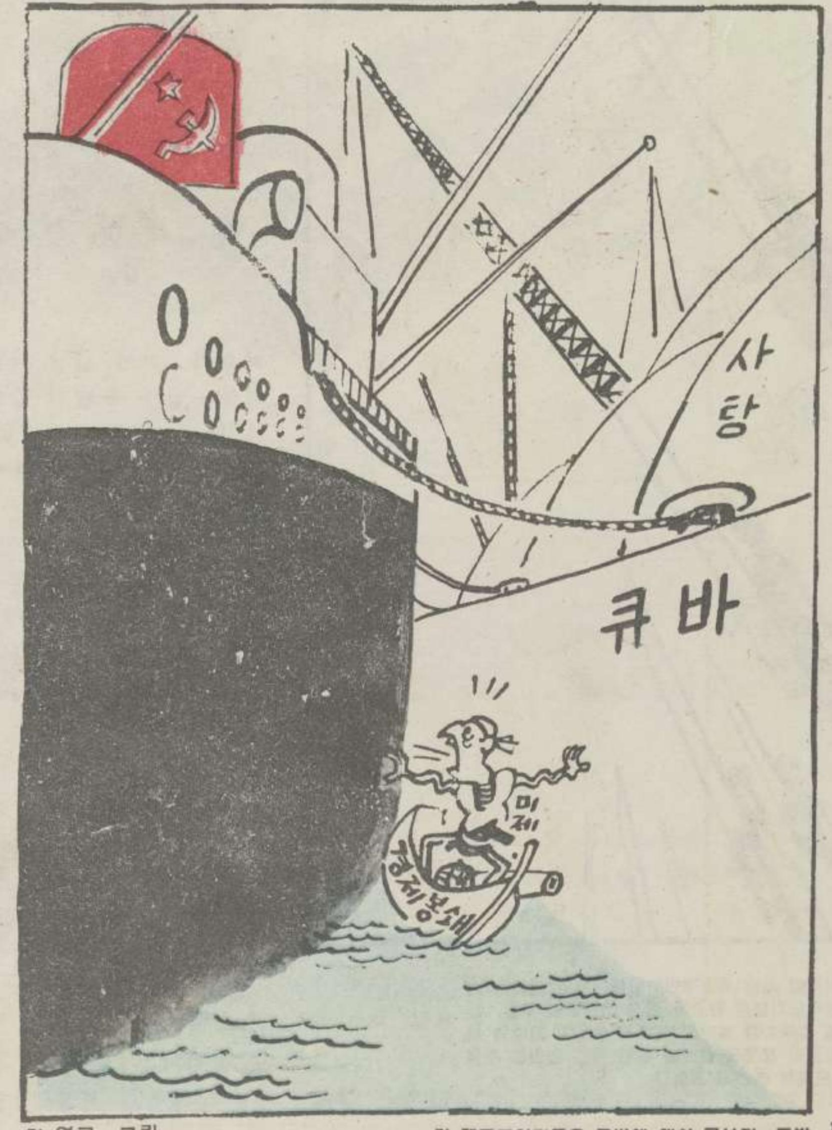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주먹

함흥시 미술 협동 조합 장 현채 그림

위험한 불장난

안 창수 그림

봉쇄됐다



최 영근 그림

미 제국주의자들은 큐바에 대한 군사적 도발 책동과 함께 최근에는 드디어 큐바의 사탕 구매를 거부함으로써 큐바를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보려고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감행하려 하였다.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콩고에 대한 야만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나 민족적 독립의 고수와 식민주의의 종국적 청산을 위한 콩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안 창수 그림

워싱톤의 《야수원》 안내

로 철

본《야수원》은 모두 세 관으로 구성되여 있다.

1, 백악관—이것은 워싱톤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데 말하자면 본관이라 하겠다.

2, 국무성—백악관과 련달아 서 있다. 작년에 불에 탄후 신축하였다.

3, 국방성—펜타곤이라고도 한다. 워싱톤의 서남쪽, 백악관의 맞은 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야수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는만큼 여기에서는 다른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는, 극히 진귀한 놈들만 골라서 소개하려고 한다.

1, 종이범: 월가가 먹여 주는 것으로 자라난 포유수이며 동물학상 학명을 《아이젠하워》라고 한다. 골격은 나무 오라기로 짰고 울긋불긋한 색 종이로 온 몸을 싼, 몹시 진귀한 야수이다. 그 동안 이 종이범은 숫한, 간약한 사람들을 놀래워 왔으나 최근에는 남조선, 토이기, 일본 등지에 보냈던 제 종자 새끼들마저 련'이어 잃어 버리고 심사가 심히 언짢은 데다가 제 《힘》을 시위해 보느라고 극동 행각을 떠난 것이 고만 가는 곳마다에서 수 많은 인민들이 모두매를 먹이는 통에 종이가 찢어지고 나무 오라기가 부

러져서 그간 입원 치료 중이였는데 야수원 원장—월가 주인의 명령이 중하여 얼마전에 다시 제 우리에 나타났으니 널리 관람하여 주기를 바란다. 단 관람자들은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2, 벽돌제 승냥이: 흔히 승냥이라는건, 양 모는 사냥'군의 총 한방에 혼비 백산하여 도망치는 법인데 본《야수원》의 승냥이는 총 한방 따위가 아니라 수천 수만 사람들이 《미제는 물러 가라!》 《양키는 뒈져라!》 라

고 심지어는 온 몸에 썩은 닭알, 빈 통조림통, 각가지의 과일 껍질의 벼락을 맞고서도 움찍 달싹 하지 않는 놈이다. 그 리유는 온몸이 벽돌'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이런 진귀한 늑대는 본《야수원》의 특산물이라 할 것이다. 지금 이 놈은 제 우리가 낮은데 자리 잡고 있다고 종이범 《아이젠하워》가 사는 우리에 옮겨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원장이 힘도 써주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그 오랜 야망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식육류중 견과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명은 《닉슨》이라 부른다.

3, 환충류 구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구렁이라면 동물학상 파충류에 속하는 것인데 이놈만은 환충류에 속해서 온 몸에 많은 환절이 있고 그 매디매디가 《대사》요 《사절단》이요 무슨 《유. 엔 위원단》이요 하는 허울좋은 이름을 달고서 《자유 세계》의 여러 곳에 퍼져서 그곳 인민의 피를 빨아 본 원의 원장을 잘 섬겨 줌으로 그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놈이다. 얼마 전에는 주제 넘게도

쏘련의 담을 넘어 보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두 동강이가 났지만 그래도 원장은 그를 본원의 《스터》로서 무척 애지중지하고 있다. 학명은 《허터》. 그의 조수로서는 《딜론》, 《머피》, 《로베트슨》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출생지가 서로 다를 뿐 모두다 그놈이 그놈들이다.

4, 혹이 달린 멧돼지: 멧돼지라면 우제류에 속하는 들짐승이나 이 우리 안에 있는 놈은 사막 지대에 사는 락타처럼 등에 큼직한 혹들을 달고 있다. 들건대 그중 가장 큰 혹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꽃밭을 함부로 뒤지려다가 호되게 얻어 맞은 후 그것이 도져서 달고 다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기타 각국

형제 국가들로부터

체코 "로하츠" 만화 잡지사 브•꾸발 그림

KĽR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코 "로하츠" 만화 잡지사 브•위쓰끄브 그림

서울에서 리 승만 도당이 넘어짐과 함께 이 동상에도 파렬을 주었다.

인민들에게 얻어 맞고 생긴 것들이라 한다. 지금도 이놈들은 하늘에 쏘련의 인공 우주 비행선이 날고 있는 세상인 줄 모르고 남조선에서, 남부 월남에서, 라오스에서. 큐바와 콩고에서 주둥이를 땅에 박고 먹을 것을 찾아 법석 떠들고 있는데 게다가 그 꼴에 모두 《유. 에쓰. 아미》 (미 륙군)니 《유.에쓰. 네비》(미 해군)이니 하는 딱지가 붙은 모자까지 쓰고 있는 것은 참 관객들의 흥미를 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학명은 《게이츠》란 놈이 제일 큰 놈이고 그 슬하에 《브럭키》, 《매그루더》, 《드와아닝》 등이 있다. 자기를 무슨 《국방 장관》이요 《장군》이요 하고 뽐내고 있는 이 야수들이 땅을 뒤지다가 기진 맥진해서 쓰러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수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으니 어서 구경 오시라.

이 외에도 직승기의 사닥다리를 잘 타는 원숭이 《해거티》, 모든 것을 반대로만 말하기로 이름난 국무원 우리에 사는 앵무새 《화이트》 및 기타 본원에는 보기 드문 짐승들이 적지 않으니 많이 참관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워싱톤《야수원》백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 15766
발행 1960. 8. 10
(값 40전)

조 명식 그림

8034 Хвальсаль
Из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1 /-12 N8C34